

# '희망 첫 걸음' 나주시, 자립 앞둔 보호아동 홀로서기 지원

### 진로탐색·취업준비·1:1심층상담 등 지원

###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등 연계기관 4곳 참여

나주시가 올해부터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안전한 자립과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자립을 앞둔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선 8기 신규 시책 '희망 첫 걸음' 자립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 종료 예정 및 보호 연장 아동의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를 통한 안전한 자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 심리·정서적인 위기를 겪는 아동의 개별 상담에 따른 감정 통찰, 긍정 마인드 함양,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상은 관내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 중 만15세 이상 보호 아동 및 만24세 미만 보호 연장 아동 중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이번 달 '경제교육'을 시작으로 '취업준비 패키지', '진로탐색', '1:1심층상담' 등 자

립 초기 필요한 분야별 사업을 관련 기관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경제 및 금융 분야 기초 상식, 취업 준비를 위한 스피치 교육, 취업 증명사진 촬영,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심리검사 및 맞춤형 개별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연계 기관으로는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광주에듀플라잇, 나주 빛가람사관 등 4곳이 참여, 시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보호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희망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진로 탐색, 취업 준비,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인 점검, 사례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기자



## 담양군, 재난 대응·복구 민관 공동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이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담양군은 17일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긴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동원을 위해 (사)건설기계개발연명사업자협의회 담양지회, 담양군 건설기계협회와 재난 대응·복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병노 군수와 이승하 건설협 담양지회장, 이호림 담양군 건기협 회장을 비롯해 각 협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복구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서에는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원가능한 장비 수량, 인력 등 상호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과 응급복구 장비·인력 지원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지원 인력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군은 굴삭기와 덤프 등을 보유한 단체들과 협약을 맺음으로써 태풍과 폭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은 물론, 대형화재와 같은 사회재난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담양=박종영기자

## "구레에서 철인 한계에 도전하세요"

### 국제 철인3종경기 참가 신청 접수...16일부터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 등록 시작

국제 철인3종경기 '2023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 대회 참가 신청 접수를 2월 16일부터 시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들은 등록 마감일인 7월 16일까지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 대회 홈페이지(<http://www.ironman.com/im-gurye>)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얼리버드 프로모션 기간인 3월 22일까지 \$600이며,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670, \$740로 책정되었다.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는 세계 철인3종경기 협회(WTC)가 주최하는 풀코스 대회로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2km로 이어지는 극한의 경주를 펼친다.

구례군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 공동 주관해 2014년부터 구례군에서 매년 열고 있다. 올해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구례 대회는 세계 챔피언십 참가권을 얻을 수 있는 정식 풀코스 대회로 지리산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대회가 높다.

그러나 2019년 태풍 타파(Tapah)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이어 취소돼 아쉬움을 샀다.

구례군 관계자는 "아쉬움을 만회하고 선수와 군민이 함께 즐기는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겠다"라며 "철저한 운영 계획 수립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한층 더 내실 있는 대회로 꾸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구복규 화순군수, 2023년도 첫 사랑방좌담회 개최

화순군은 16일 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사랑방 좌담회를 개최했다.

구복규 군수는 선거공약으로 군민에게 직접 찾아가 군정 계획과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역현안과 생활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월 2회 이상 군민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월 군민과의 신년대담 이후 올해 처음

개최하는 사랑방 좌담회에 이서면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간담회의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날 좌담회에서 구복규 군수는 화순적벽을 비롯한 이서의 주요 명소 등 지역 활성화 방안 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16명의 주민에게서 21건의 건의를 경청하고 일일이 직접 답변하며 군민과 직접 소통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곡성군, 주방 클린업 지원 사업 추진 음식점 주방 기름때 찌든 때 'OUT'

곡성군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주방 클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방 클린업 지원 사업은 일반음식점의 닳트, 가스렌지, 바닥, 벽면 청소 등 주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0개 업소를 선정하여 업소별 최대 100만 원까지 청소비용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 1월16일부터 2월3일까지 곡성군에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였고, 2월 15일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주 4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군에서는 서류 및 현장 심사를 통하여 최종 30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전문 청소 용역 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가 완료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맞춤형 주방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은 지난해에 전남 음식문화 개선 분야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1,000만원을 수상하였고, 음식점 위생 등급제 및 식품안전관리분야 광주시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을 받는 등 지역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방 클린업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반찬 수가 많아 버려지는 음식물을 절감하기 위한 셀프바 설치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 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 선도 시군으로서 임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영업주 친절 교육을 실시 하고, 지역 일반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위생적인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혜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남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